





한동인 Magazine

Vol. 9

Handong IN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Special Theme

- 05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지성을 갖춘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정순홍 총장
- 07 통일은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
한동 통일위원회
- 08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오기를
북한 중보기도모임
- 09 하나된 목소리로 통일을 노래하는
너나들이 하모니
- 10 전문인 새터민 양성을 꿈꾸며
향기내는 사람들, 임정택 동문
- 12 공휴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통일
김완진 목사(교목실)
- 14 통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송인호 교수(법학부)



People

- 16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품고
세계를 그린다.
첫열매 후원자 김다솜 동문
- 18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유학기제 김혜연 학우



Inside

- 20 벗의 푸르름을 기뻐하는 공동체
열송학사 RC
- 22 아이들의 마음 지킴이,
코칭네이버스
- 24 사랑의 실천, 아모르데이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기획 후원팀, 대외협력팀
 글 학생기자(곽하은, 김예은, 배정훈, 윤예준, 이예진)
 사진 학생기자(정광준) 표지사진 Simon Kondo 디자인 권애경디자인연구소



Focus

- 26 2019학년도 입시전형 '수시 100%'
- 30 한동 가족목회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7000 갈대상자
- 32 옥합을 깨뜨린 두 자매

함께 엮는 갈대상자

- 34 한동 기도의 장막
Handong's House of Prayer
for Every Nation
- 36 한동대 학부모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 37 느헤미야홀 복구를 위한
충동문회의 사랑을 기억하며
REBUILD HANDONG
- 38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 40 Mungu ni hai 살아계신 하나님
- 42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라메나리스 노로소아 줄리아
- 44 따뜻한 한끼,
23,301번의 한동만나를 나누다

Community

- 46 한동툰
- 47 기부자 명단
- 48 후원 안내

통일을 준비하는 한동대학교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정상회담이 열렸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은 '판문점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통일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

우리 한동대학교는 2014년 장순홍 총장이 취임하면서 영성과 인성이 융합된 신앙 함양, 재능 발전과 발휘의 장 조성,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라는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에서는 '통일한국'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북한 중보 주간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센터를 통해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동 동문들은 교육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원을 돕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의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북한의 식량과 건강 분야의 증진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센터, 통일과 평화연구소의 설립, 학내의 통일 스케치, 북한중보주간 등 통일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Special Theme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한동대학교'라는 주제로 한동 구성원들의 통일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지성을 갖춘 통일의 주역이 되기를

장순홍 총장



Q. 최근 남북에 긍정적인 교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남과 북은 늘 여러가지 교감이 있어왔죠. 현재는 과거 있었던 교류보다는 기대를 많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마인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 너무 교착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길은 언젠가 분명히 가야하며, 어려움은 있을 것이지만,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기독교인으로서 통일 이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 측면의 사명이 있겠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고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이웃인 북한을 위해서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북한 민족을 돕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북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달란트를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죠. 또한, 경제적 분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영적인 것, 교육적인 것 등 다방면에서 기독교인의 사명이 있으리라 봅니다.

Q. 한동대학교에서 다양한 통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2014년 취임하자마자 “내가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면서 10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두번째가 통일한국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통일과 관련된 학회, 통일한국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 보건,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개선을 위한 이 연구를 위해 최근 평양과기대 총장님께서 한동대를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01 나우(NAUH)(대표 지성호)와 통일사업 공동추진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02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사장 안병훈, 왼쪽에서 세 번째)과 통일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03 통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동통일한국센터'의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Q. 기독교 지성인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한동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동인들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큰 사명이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고, 북한의 미래,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냉철한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마음이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돕겠다는 마음, 빨리 분단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는 그런 냉철한 지성과 이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한동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동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명을 가졌을 때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배워서 남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일을 염두해 두고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과 풍부한 지성을 갖춘 우리 한동인이 되고 통일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무던히 생각하고 갈망하며 준비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 한동 통일위원회

Q. 한동 통일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동 통일위원회는 한동대학교의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의 연합을 위해 2015년 2학기에 신설 되었습니다. 한동 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이 의무와 사명으로 서 주어졌음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교내 통일단체들과 협력하고 기독교 가치관 아래에서 활동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북한중보기도주간과 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단체리더 정기회의 및 예배가 있습니다. 북한중보기도주간은 한동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미리 준비한 동아리, 학회들과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재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가 하나님의 대학교로써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통일단체리더 정기회의와 예배를 통해 매주 모여 함께 기도하고, 통일이라는 큰 그림 아래 각자의 활동은 다르지만, 통일의 방향성을 함께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Q.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세대 마다 분명히 감당해야 할 뚜렷한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때 그 다음 세대는 그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그러지 못했을 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세대의 통일은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됩니다. 통일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오기를, 북한 중보기도모임



Q. 북한 중보기도모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북한 중보기도모임, 줄여서 북중모라고도 부르는 저희는 북한을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한 동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Q. 북중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나요?

북중모는 매주 목요일 저녁 정기모임, 북한중보주간 개최, 하늘꿈 학교 활동, 세가지들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녁 정기모임은 목요일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학우들과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짧게나마 찬양,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탈북 청소년 학교인 하늘꿈 학교와 협력을 하게 되어 그곳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꿈 학교 자체 방학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중보모임 사람들이 하늘꿈 학교의 방학캠프 스태프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2학기때 있는 북한중보주간에 하늘꿈학교와 함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두 번의 기도 여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씨앗'이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왔어요. 앞으로도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방문할 예정입니다.

Q.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바라는?

무엇보다 통일을 생각했을 때, 저의 생각보다는 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일을 바라고 있어요. 저희의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치유가 있다면 그것이 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된 목소리로 통일을 노래하는 너나들이 하모니



Q. 너나들이 하모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나들이 하모니는 합창을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동아리입니다. '너나들이'라는 말은, 서로 '너', '나' 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이 말처럼, 저희는 남한 청년들과 북한 청년들이 합창을 통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며 통일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Q. 너나들이 하모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학교 수업을 통해 시작됐어요.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사회복지 전공 수업인데,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수업이에요. 한동대학교 입학전형 중 '북한이탈주민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자 '북한'과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구상했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4명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학생이 1대 1매칭을 통해 친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더 많은 남북한 청년들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의 합창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나들이 하모니의 합창은 방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의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우리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Q. 너나들이 하모니가 바라는 통일은?

저희의 슬로건은 '우리 안에서의 작은 통일'이에요. 우리 안에서의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것을 한동대학교와 지역사회에 진심 어린 하모니로 전달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자는 의미예요. 합창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파트를 맡아 하나의 노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저희 합창은 통일 이후의 모습과 분단의 극복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 시켜주고 싶어요. 북한은 우리의 민족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들이잖아요. 같은 역사를 가졌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서로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잖아요. '너나들이 하모니'의 합창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의 한반도에 대한 감동을 전하고, 그 작은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한반도 화합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인 새터민 양성을 꿈꾸며 향기내는 사람들, 임정택 동문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향기내는 사람들'의 대표이사 임정택(경영경제 04)입니다. 2008년도에 '향기내는 사람들'이라는 사회혁신 기업을 창립해 2009년에 히즈빈스커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새터민들과 함께 '라면엔 커피'라는 사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Q. '라면엔 커피'라는 이름이 독특한데요

'라면엔 커피'는 통일한국을 소망하며 시작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향기내는 사람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에 의지하여 세워진 것처럼, 전 세계 장애인들을 전문가로 양성해 함께 꿈을 이뤄가고, 통일한국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히즈빈스라는 카페사업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레'라는 떡과 과일청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면엔 커피'는 새터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분식 사업입니다. 분식 사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통일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의 새터민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여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분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설레 떡과 과일청 사업에 참여한 새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설레에서는 새터민 선생님들이 지난 6년 동안 제조업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쌀을 불리고, 분쇄하고, 찌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작업을 통해 식품 제조업의 기본적인 업무들을 익혔습니다. 또한 그 작업들을 통해 초콜릿설기, 꿀설기, 호박고구마설기, 딸기설기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신 메뉴들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새벽4시에 출근하여 오전 11시까지 일을 해야해서 여러가지 육체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터민들에게는 포항에서의 일자리 확보, 떡 제조 및 과일청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계기로 포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북한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통일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Q. 라면 엔 커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서비스 업무의 교육은 7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가치교육, 이론교육, 서비스교육, 위생교육, 분식 레시피 교육, 음료 레시피 교육, 최종실습 및 평가의 7단계 교육이 완료되면, 깔끔한 복장으로 밝은 미소와 함께 서비스 업무가 시작됩니다. 비록 역량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새터민 선생님들만의 열정과 흥으로 고객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Q. '라면 엔 커피'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비전은?

'라면 엔 커피'의 비전은 새터민들과 처음으로 함께 했던 '설레'의 시작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레'를 시작하던 2012년에 기도 중에 통일한국과 새터민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지역의 200여명의 새터민을 만나게 되면서 생계 유지의 문제, 자립의 문제, 기술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 후에 북한 주민들과 그리고 새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의 틀을 만들고자 '설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터민들과의 인연이 히즈빈스 디저트 사업으로 이어졌고, '라면 엔 커피'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면 엔 커피'는 새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 후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창업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Q. 통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나누고 싶은 비전은?

통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개념적인 준비보다 실질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있는 새터민과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삼만명의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고, 우선 실제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본인의 전공을 통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훈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통일

김완진 목사(교목실)



지난 5월,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토레이 칼리지 학생 40여명과 북녘의 땅이 손에 닿을 듯 보이는 DMZ를 방문한 것이죠. 코너스톤 창 의 과제로 진행된 일정 내내 가슴이 콩닥였습니다. 특별히 판문점, 개성시 번두리, 송학산이 어렵게 보이는 도라전망대와 “타는 곳 평양방면”이란 안내간판이 걸려있던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 도라산역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동안 기억 저편에서 먼지가 폴 폴 놓여있던 통일한국에 대한 기도와 바람이 다시 기지개 퍼듯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제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남북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통일을 해야 한다기 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문제부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2.3%로 10년 전 응답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매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반대는 계속 상승하여 ‘통일할 필요없다’는 응답이 22.1%

입니다. 이런 변화는 통일의 당위성, 그러니까 ‘왜 통일을 해야 하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듯 보입니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통일의 당위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민족사적, 민족주의 담론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가치는 통일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가치를 떠나서는 통일의 근거나 논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아픔을 극복하고 마땅히 온전한 민족국가로 재통일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응답을 차지합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보편가치 담론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고문, 구금, 정치수용소 내 강제노동, 감금, 강제 낙태 및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35%의 응답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은 경제적, 통일 편익 담론입니다. 현 분단의 상태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사회·경제·정치·군사·환경적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훨씬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과 결합한다면, 전쟁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될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통일 비용, 즉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완성하기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계산이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회·문화·정치·경제·생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통일대박론’도 그 중 하나로 보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께 찾아와 묻습니다.

“누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눅 10:33-34)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누가 내 이웃인지 밝히는 것 보다, 강도 맞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사는 단 두 개, ‘보았다’, ‘지나갔다’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에게는 여섯 개의 동사가 이어집니다. ‘가까이 갔다’, ‘부었다’, ‘싸맸다’, ‘태웠다’, ‘데리고 갔다’, ‘돌보아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 동사들은 모두 낭비의 동사, 즉 소모적 단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소모되고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싸매고, 붓고, 태워 안식처까지 가야 합니다.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고 함께 하룻밤을 세워야 했습니다. 통일에도 시간과 물질의 낭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과 물질의 낭비를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낭비는 ‘마음의 낭비’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모든 동사를 행할 수 있었던 내적 동기는 “불쌍히 여겨는 마음”, 긍휼, 측은지심(惻隱之心)입니다. 이 동사는 신약성경에 단 12번 사용되는 단어로, 독특하게 모두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한 사건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측은지심 하시면 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측은지심 하시자 오병이오로 오천 명이 풍성히 먹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측은지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통일을 준비하는 근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또다른 편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북한 동포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사람에 대한 긍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의 전공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긍휼의 마음을 낭비합시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삼위 일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짐을 잊지 맙시다.



통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송인호 교수(법학부)



들어가며

저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종종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3가지 소명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1차적 소명(보편적 소명), 그리고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특유하게 주어진 2차적 소명, 그리고 이 시대에 공동체적으로 부여받은 3차적 소명이 그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거나 성경을 바라볼 때도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각 세대에는 시대적 소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을 생각해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민족의 비극인 전쟁과 분단, 가난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자유를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참으로 우리 선배 세대들은 너무도 많은 시대적 아픔들을 온 몸으로 품어 안으며 때론 가슴 깊이 묻으며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사랑 덕분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는 우리 앞 세대들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시대적인 빚을 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풍요의 빚을 진 자로서 지금 우리 세대에 맡겨진 공동체적 시대적 소명은 바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는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대적 사명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4장의 에스더가 왕비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던 모르드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에서 개인적 차원의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는 흐느껴 울며 생명의 연장을 간구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하나님의 패망의 경고 말씀에는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만 없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던 히스기야의 태도를 반면 교사 삼아 내가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개인적 평안만을 구하는 이기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해도 좋다고 애통해 하며 기도한 로마서 9장의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7년 전 통일법제리서치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일 후유증을 묻는 제 질문에 대해서 어느 독일 전문가가 이렇게 애

기했습니다. "분단국에서 일시적 경제적 번영과 안정만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으며, 통일은 경제 이전에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독일전문가의 말처럼 통일은 철저히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입니다. 독일도 통일 후 10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 후에 한동안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살아갈 나라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미래 세대,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혼란을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부적으로 끊임 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위축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풍요, 사랑과 공의를 전하며 복음전파와 세계평화의 새로운 글로벌패러다임 전환을 불러 일으키는 이웃나라를 섬기는 모범국가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 바로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고, 통일 시대를 살아갈 크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삼국통일 이후, 단일 국가가 형성된 이래 후삼국시대에 50년간의 분열이 있었고,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기에 분단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년 만에 분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후삼국시대 이후 고려가 400년을 조선왕조가 500년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제 남북한 간의 새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앞으로 최소한 500년 정도는 이어질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담겨있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통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전 지구적 문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건국으로 상징되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지금까지 약 250년간 전 지구적으로 퍼

저 나갔듯이, 우리가 통일,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새롭게 통일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현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실 것이고, 통일된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더 섬기고 선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통찰력입니다. 비전을 보이시고 답을 알려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계층별, 집단별 증폭된 갈등이 너무 심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바로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과 세상을 경영할 비전과 지혜를 탁월하게 알려 주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물리적인 나이로만 보면 청년의 때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나라의 패망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나라가 망한 잘못은 기성세대의 탓이야, 기득권자,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억울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니다. 본인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배 세대들의 공과과를 모두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배 세대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죄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이 순간 선배 세대를 비판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러한 회개가 있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지혜와 은총과 총명과 환상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는 지난 100년의 우리나라 역사, 개화기, 일제 강점기, 전쟁, 분단, 그 이후 사회 갈등, 이 모든 과정에서의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 우리의 죄라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크고 놀라운 통찰력과 비밀을 보이실 것이고, 통일된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더 섬기고 선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운동가인 새뮤얼 스마일즈는 ‘인격론’이라는 책에서 ‘천재성은 감탄의 대상일 뿐이지만 사람의 존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 시대

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리더는 실력과 더불어 인격과 인품을 성숙,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경말씀에서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롬8:29, 갈4:19, 엡4:13). 이러한 신앙과 인격을 갖고 다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 주위에 인물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왜 정작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인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인물이 되라고 하느냐, 그런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길 기다리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실, 책임감, 사랑, 인내 등의 덕목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한 인격을 길러야, 70년간 이질화된 북한주민들과 그 다름을 인내하고 참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후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이 노예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는 클레팸 파라고 불린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30년간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0년간의 노력 끝에 의회의 입법으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북간의 진정한 통합은 통일의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60년이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는 말씀에 의지하여,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견디어야 하고, 또 내가 나의 역할을 다한 다음 이어서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의 연속성에 사명의 완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에 후세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마음 담대한 마음을 품고 영원을 믿는 사람답게, 큰 시각,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서 북한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내 문제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자의 상황에서 기도하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세대에 부여한 공동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통일준비,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였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칭찬받는 세대, 부족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를 품고 세계를 그린다.

첫열매 후원자 김다솜 동문

첫 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동대 졸업생들의 첫 월급 기부이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슬로건에 가슴
이 쿵쿵 뛰었던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김다솜 동문을 만났다.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와 미국·국제법(UIL)을 전공한 II학번 김다솜입니다.

Q.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단법인 APEC 국제교육협력원 다자협력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의한 APEC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그리고 4년마다 개최되는 APEC교육장관회의의 의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21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의장직을 수행하는 중으로, 교육과 노동 분야를 관장하는 실무그룹 의장 활동을 보조하는 의장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첫 월급을 학교에 기부하게 된 동기는?

사실 첫 월급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이었는데,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교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동대를 졸업하고서는 KOICA 베트남 사무소 인턴으로 근무하여서, 첫 월급을 학교에 기부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학교를 다닐 때 선배님들께서 학교를 위한 귀한 헌신을 실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막연히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저 또한 기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선배님의 첫 열매를 통해 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우리 학교가 ‘한 동, 한 동’ 세워져서 한동대가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처럼, 졸업생의 자그마한 헌신으로 학교의 ‘한 동 한 동’을 세워가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학교를 다닐 때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으로 전공 공부는 물론 팀 모임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대학교 회예배 공동체인 챔버에서 첼로를 연주했고, 2학년 때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한스트 때의 감동을 이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새내기 섬김이위원회로 자원하여 새내기를 사랑하고, 새섬이를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3학년 때에는 전공을 지정한 후, 미국·국제법(UIL) 학회인 Law and Advocacy 활동, 호스피스 교육 과정 이수, UN Academic Impact (UNAI) 활동을 했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에도 한동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계절 학기를 이수하고 한동 영어캠프 교사로 활동하였고, 2012~2014년, 총 3년간 한스트를 함께하며 한동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GET 프로그램(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페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Q. 한동의 어떤 점을 사랑하고 지켜 나가고 싶으세요?

한동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무전공 입학 후 2개 전공이라는 융합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업과 더불어 자기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다양한 학회, 동아리,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관심사에 따라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한동에서의 생활은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종교인 혹은 무교인 학생들에게도 열린 태도로 지성과 영성 그리고 인성이 조화된 특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한동에서 이것만은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나 경험들이 있을까요?

한동에서 마음껏 '먹고, 사랑하고,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찜닭과 족막(족발 막국수)를 비롯하여, 팜스발리 피자, 물회 등 특별한 음식들을 혼자서만 먹지 마시고, 새내기팀, 방돌이, 방순이, 학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먹으면서 영과 육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 또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한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에서의 생활은 4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실력을 키우고, 또한 겸손히 기도하며 앞으로의 갈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직장생활에서 힘든 경험은?

다행히 저는 한동에서 배운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과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던지, 군대식 문화를 경험할 때 조



금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 힘든 시간은 보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상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동에서 들은 잊지 못하는 말씀으로 이 악물고 사랑하라는, 김완진 목사님의 '스룽혼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한동에서의 성장과 연습이 평생의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1학년이지만, 3년 늦게 대학을 진학하여 올해 30살이 된 저는 20대를 돌이켜 보면 대학생활이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시절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전공을 공부하며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슬로건에 가슴이 쿵쿵 뛰었던 그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큰 가르침을 주신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그림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삼겹줄처럼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끊어지지 않는 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한동을 '힘내라 한동'하며 응원하고 조그마한 물질로서, 그리고 기도로서 복구에 힘을 보탠 동문이, 미래의 후배님들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곁에 계신 주변 분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사회, 교직원, 학부모, 후원자들, 그리고 선후배 등 우리 모두가 한동을 더욱 아름답게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스룽혼드 : 1.사랑한다를 이팍물고 발음한 것 2.사랑한다를 이를 꼭 깨물고 발음한 것으로 강조하거나 격하게표현함을 일컫는 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유학기제 김혜연 학우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과에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어문학부 14학번 김혜연입니다. 저는 통번역을 하고 싶어서 한동대학교에 입학했고, 영어와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1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Q.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은?

도시회복력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전세계 여러도시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비영리 기관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일상적으로는 록펠러재단 100RC(100 Resilient Cities)과 격주 화상회의의 통역을 비롯하여 회복력 관련 영문보고서 작성, 해외교류와 관련하여 전세계 전문가와 도시 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 통역 및 사전 조율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기회로 안전총괄과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4학년 1학기, 즉 7학기를 마치고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전공관련 업무를 찾다가 국제통역번역협회를 통해 서울시청의 공고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도시교류를 통해 고위급 도시 대표들과 자주 만나면서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학점도 인정 받으며 업무도 배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 일 하면서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나요?

이 일을 하면서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꼈던 순간들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업무 특성상 최소 세계 100개 도시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고, 로마와 밀란, 파리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유명 도시의 대표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하며 컨퍼런스나 워크샵에 초대되어 양질의 강의를 듣기도 해요.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글로벌 컨설팅회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데 탁월한 문제해결능력과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이미 꿰뚫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들을 보면서 줏았던 제 시야를 하루 하루 더 넓혀갈 수 있었어요. 재학생 신분으로 공기업에 몸담고, 내로라 하는 기업과 함께 브레인스토밍부터 문제해결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밖에도 시장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이야기 나눴던 일, 자카르타 부지사와의 3:3미팅 등 예상치 못했지만 재미있었던 일도 많이 있었어요.

Q. 학교 생활은 어떻게 보냈나요?

지난 학교생활을 뒤돌아 보면 숨가쁘게 달려온 모습이 그려져요. 누군가에게는 3년 반 동안 쉽 없이 달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도 그 당시 저는 지구력이나 체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땀 하늘을 향한 춤이라는 한국무용 동아리 하향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때 아니면 '내 생애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지원하게 됐어요. 하향을 통해서 1, 2학년 겨울 방학 동안 교내문화선교단체 Mission and Talent의 일원으로 태국 선교를 다녀왔고 두 번째로 갔었을 땀 학생 리더를 맡았어요. 3학년을 시작하면서 성경통독학회, 하심, 통역학회, 국제협력실에서 번역 근로, 한동국제학교에서 통역 근로도 했어요. 4학년 1학기 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내활동과 새내기 섬김이를 했어요. 정말 바쁜 하루 하루였지만 한동에서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보낸 3년 반의 시간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Q.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학교를 생각하면 사람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요. 갑자기 학교를 떠나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계획하지 않게 떨어진 제 17학년 새내기 동생들이 많이 그립고, 제가 인성, 영성, 지성의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리사랑을 흘려 보내주신 교수님들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나요. 또 한동에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특히 시험 기간엔 오토이 말씀과 공



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러 효암채플로 가는 길,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으로 오는 길,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혼자 오가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쳤어요. 오늘 밤 폭 자면 괜찮아지겠지요?' 이런 생각부터 '하나님, 오늘 석양이 너무 예뻐요.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리고 이 하늘을 기한없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이런 대화까지요. 서울로 올라와선 광화문 길이나 덕수궁을 걸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곤 하는데 아직까진 한동의 하늘과 바람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고, 전문직을 경험해보니 대학생으로 보내는 4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과 실력은 기본 역량만 있다면 경험이 쌓임에 따라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통역이나 번역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국제교류와 관련해 이상적인 스펙을 완성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실

한 믿음생활, 남녀노소 차별없이 사람을 대하는 법, 내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이나 타인을 탓하지 않고 그릇된 행동 자체만을 바라보는 자세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곳이 대학교이긴 하지만, 한동은 나홀로 무심하게 서 있는 지식의 상아탑이기보다 넓고 오름직한 동산으로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개인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 같아요. 공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는 영성과 인성으로 대표되는 관계, 태도, 자세는 한동에서 꼭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벗의 푸르름을 기뻐하는 공동체 열송학사 RC(Residential Colleges)

PHILADELPHOS COLLEGE SINCE 2014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열송학사 RC는 '벗의 푸르름을 기뻐하는 잣나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열송학사의 다짐을 담고 있다. '열송'이란 '송무백월(松茂柏悅)'의 줄임말로,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잣나무(측백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이다. 즉 같이 자라는 가운데 자신보다 옆에 있는 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사람됨의 근본 도리이며, 특히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다.



2014년 한동대학교 로데옴에 설립된 열송학사 RC(Residential College)는 학생들이 '함께'라는 공동체 정신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송학사는 2018년 표어를 '사람이 재산이다'로 정하고, 공동체 정신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는 기획 아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자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열송학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한양나들이'는 갈수록 무색해져 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과거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가문이 함께 모여 일군 양동마을을 방문해 공동체 의식을 엿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학에 능통한 김윤규(글로벌리더십) 교수는 선조들의 지혜에서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해 학생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학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반석(글로벌리더십학부 18학번) 학생은 "한복을 입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고, 새내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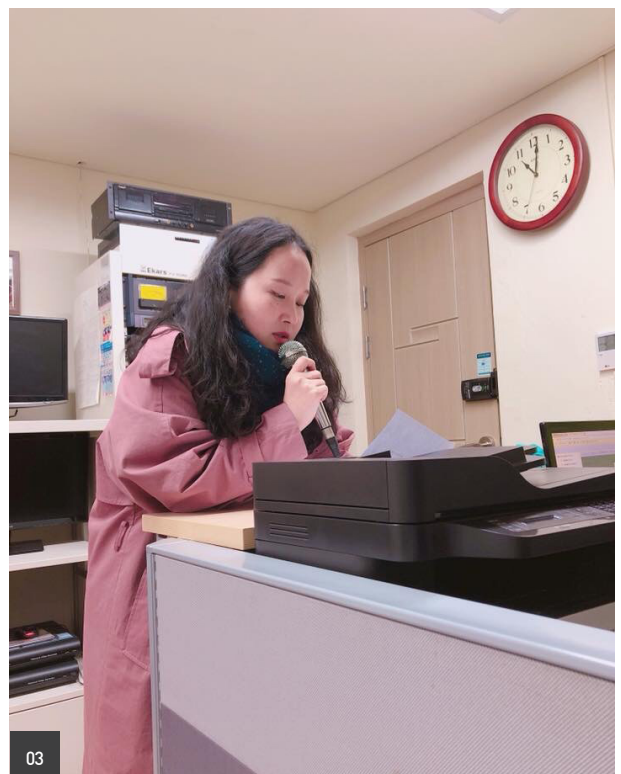
또한, 열송학사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일 점호방송 이벤트'는 열송학사 RC 임원들이 하던 일상적인 생활관 점호 방송에서 탈피해 구성원들의 지원을 받아 직접 점호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을 맡은 구성원은 평소에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었던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며,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열송학사 이재황 학생 대표는 "공동체 정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며 "수요일 점호 방송을 통해 평소에 면대면으로 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또 구성원들은 진행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점호방송 진행에 참가한 김시우(글로벌리더십학부 18학번) 학생은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 형, 누나, 친구들의 얼굴에 점점 다크 서클이 내려오고 지쳐 보였다. 이번 점호방송을 통해 제가 꼭 힘이 되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열송학사 RC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잣나무가 소나무에게'라는 시험기간 중 신청자(잣나무)의 편지와 임원단에서 준비한 아침을 피신청자(소나무)에게 전해주는 프로그램과 '열송가즈아'를 통해 열송학사에 관련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열송학사 RC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

01 '한양나들이' 프로그램, 양동마을 입구에서 김윤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02 '한양나들이' 프로그램,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03 '수요일 점호방송' 프로그램, 이희진 교수님이 점호 방송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 지킴이, 코칭네이버스(Coaching neighbors)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북돋아주는 코칭네이버스 학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코칭네이버스는 상담 기법 중 코칭이라는 기법을 우리 주변 지역사회, 이웃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학회다. 코칭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가정, 이혼 가정, 조손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및 지도를 하고 있다. 전공 지식과 코칭을 기반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하며, 포항 지역사회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강점들을 발견해주고 사회적 지지를 해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코칭네이버스는 경북포항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취약계층 아동

(0~12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의, 복지, 부모양육 지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의 명단을 받아 학회 원들과 아동을 1:1로 연결해 멘토링을 진행한다. 드림스타트의 경우, 저소득에 속하는 초등학생의 명단을 받아 멘티에게 명단을 전달한다. 한편 Wee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가정 폭력, 학교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티를 모집한다. 코칭네이버스는 Wee센터 아이들의 상담이 끝난 후, 아동들이 상담을 통해 변화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차원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코칭네이버스는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멘티를 찾아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코칭네이버스 학회장 안세희(상담심리, 13)

학우는 “코칭네이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과의 만남은 상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아동을 만날 때는 상담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코칭네이버스는 1:1매칭 멘토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멘티 인원에게 학회원을 모집한다. 보통 최소 2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모집하며,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매주 수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드백, 스터디,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교수가 참여하는 정기모임에서는 각 멘토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기관을 초청해 프로그램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코칭네이버스 학회장은 “이전에는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만이 학회활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상담학회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담기법에 대해 더 공부해서 멘토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칭네이버스는 학회 차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체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지만 2018학년도 1학기는 드림스타트에서

개발한 꿈과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한편 Wee센터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칭찬, 감사 프로그램이나 또래 관계 개선과 같은 학회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다. 코칭네이버스 부학회장 강하진(상담심리, 14) 학우는 “학교에서의 공부는 이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멘토링을 통해 아동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과정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코칭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멘토링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상담의 학문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한다. 코칭네이버스 학회장 안세희(상담심리, 13) 학우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서 학회원들이 ‘내가 상담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내담자와 1대1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 내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삶을 더 돌아보고 함께 나아가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동의 나눔과 봉사라는 가치를 잘 지켜 나가는 학회가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사랑의 실천, *Amor Dei*

아모르데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학우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 데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아모르데이 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서비스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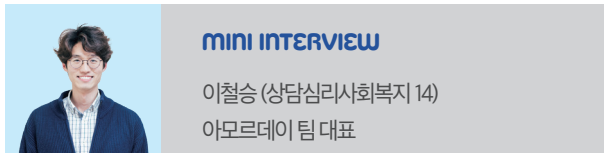
아모르데이는 2017년 1학기 사회복지 전공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획한 서비스이다. 아모르데이 팀은 가계곤란 여중생이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쓴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한동대학교 학우 중에도 이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89%의 학생들이 생리대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100원에 제공하는 '한동만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생리대 제공 서비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동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1학기 아모르데이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직접 '시크릿데이' 생리대 회사를 찾아가 2천여 개의 생리대를 후원 받았다. 또한 교내 입주업체의 후원과 총학생회와의 협력으로 2017년 1학기 11주차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3학기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모르데이팀은 학기 초에는 생리대, 디스펜서, 후원과 같은 자원을 준비하고 6주차 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해당 학기의 준비된 생리대가 소진될 때까지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재 오석관, 뉴턴홀, 느헤미야홀, 학생회관 1층과 현동홀 3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디스펜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아모르데이는 생리대를 디스펜서에 채워 두면 학우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무인시스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의 1차 대상자는 가계곤란 여학우이고 2차 대상자는 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여학우이다. 단, 2차 대상자에 속하는 여학우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양심적으로 자신이 쓴 만큼의 생리대를 다시 디스펜서에 채우도록 하고 있다. 아모르데이팀은 무인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한동의 아너코드 문화로부터 이웃사랑을 실현하고자 했다.

아모르데이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아모르데이팀은 수업을 위한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고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한동대학교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학우를 지속적으로 돕고 싶다고 전했다.



MINI INTERVIEW

이철승 (상담심리사회복지 14)
아모르데이 팀 대표

Q. 아모르데이를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일화

2017년 2학기, 포항에 큰 지진이 발생해서 한동대학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 급하게 나오느라 여성용품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던 학우들이 학생회관 1층에 설치된 아모르데이 생리대를 사용하여 위급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서비스를 이용한 학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학우가 생리대 한 박스를 기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우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Q. 아모르데이를 통해 배운 점

저를 포함해 아모르데이 팀원들 모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며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와 지식을 아모르데이 서비스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사회복지가 직접적인 실천을 할 때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학문이라는 것

을 깨달았습니다. 한동대학교의 'Why not change the world?' 표어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곳 한동부터 변화시킬 때 앞으로 나아가갈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Q. 아모르데이의 비전

아모르데이를 통해 한동 아니코드에서 뻗어 나오는 사랑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대를 나누어 줄 때 가계곤란 학우들을 조사하여 직접 나눠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한동 아니코드를 통하여 이웃사랑이 실현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우들이 학교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Focus 1

2019학년도 입시전형 '수시 100%'

2019학년도 수시 100% 선발

한동대학교는 2019학년도 입학생 선발을 수시 100%로 진행한다.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구분되어 총 15개의 전형으로 진행된다.

2009년부터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해 온 수시전형

한동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시작하여 수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다년간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으로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규모를 확대하여 2019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는 83.1%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된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위주의 평가를 시행하여 수험생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해 왔고, 2019학년도 모든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수험생의 대입전형 준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실기 위주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해외학생, 해외선교사 자녀,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양한 고교유형 및 고졸학력을 가진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장인 공)' 자형 글로벌 창의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방법

모든 전형의 평가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고사로 이뤄진다.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한동대학교의 학생선발 기준인 G-IMPACT(글로벌, 인성, 동기, 성장잠재력, 학업능력, 창의·통섭, 재능특기)를 따라 평가한다. G-IMPACT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공역량과 글로벌 및 창의역량을 갖춘 'G(장인 공)' 자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선발기준이다.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각 항목(본교 인재상 부합도, 논리성, 독창성, 성장잠재력, 의사소통 및 면접태도)에 따라 평가한다. 면접고사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출시되는 공통질문과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기초한 맞춤형 개별질문을 실시한다.

한편 김명호 입학사정관 팀장은 우리 대학은 지원자의 다양한 면을 보기 위해 12명의 입학사정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성에 치우쳐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장려했다. 한동대학교는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다른 대학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1,2학년 때부터 입학처에서 주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교육철학

무감독 양심시험
정직과 성실의 Honor Code
"배워서 남 주자"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인성교육

팀 제도 및 팀담임교수제
Residential College
새내기 섬김이 내리사랑



글로벌 교육 환경

해외 33개국 출신(15%) 입학
전공 영어 수업 비율 38% 이상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학생 중심 학사제도

무전공 무학과 입학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변경
학생설계융합전공

하는 'G-IMPACT체험활동' 또는 '전공체험프로그램' 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입학상담을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운영

한동대학교 입학처는 한동대 입학 홈페이지(admissions.handong.edu)와 한동대 공식 홈페이지(www.handong.edu)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ID: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hgu.admissions), 유튜브 채널 '한입만' 라이브 방송 등 같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동대학교 입학처가 상시 입학상담을 제공하고 캠퍼스 투어와 입학상담 및 재학생 상담을 제공하는 '오픈캠퍼스',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입학상담을 개최하는 '찾아가는 입학상담', 한동대학교를 미리 체험하는 'G-IMPACT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한동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입학 안내 정보는 한동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종합, 일반학생, 지역인재, 대안학교,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 소프트웨어인재 전형
- 실기 위주 전형 해외학생, 해외선교사자녀,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형



탁월한 전공 역량

복수전공 필수
창의 융합 교육
학부 교육 지원 사업
(ACE, LINC+, PRIME, CK, SW 등)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형 수업
대학 최초 자유학기제
(현장참여형 수업)
학부생 연구 학회 지원 사업
(STAR & WISE)

ON-LINE 만남

HGU 카카오톡 상담

Yellow ID: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클릭 ⇒

ID/플러스 친구검색 ⇒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 추가!

평일 오전9시~오후6까지 한동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입시부터 전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HGU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gu.admissions

페이스북에서 '한동대학교 입학알리미'를 검색해보세요.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한동인의 일상부터

최신 입학정보와 입학상담까지 가능한 만능 페이지!

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손 안의 핸드폰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OFF-LINE 만남

오픈캠퍼스

한동대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캠퍼스 투어, 입학상담, 재학생 상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시: 학기 중 매월 2주차, 4주차 토요일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장소: 한동대학교

*참여방법: 입학 홈페이지에서 방문 8일 전까지 신청

찾아가는 입학상담

입학사정관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입학상담을 개최하여 한동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및 입학전형 안내,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일시/장소: 4~7월 중 국내외 주요도시

*상세 일정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방문 입학상담 및 전화상담

한동대학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평일 근무시간동안 상시 입학상담 제공

*일시: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장소: 한동대학교 현동홀 105호 입학사정관팀

*참여방법: 전화 예약 후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054-260-1084~6)

G-IMPACT 체험활동

한동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전공체험, 한동 문화 등을 미리 체험하고 한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창의·인성 체험 프로그램

*대상: 고등학교 1~3학년

*일시/장소: 매년 7월말, 한동대학교

*참여방법: 5월 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Focus 1



재학생 이야기

정영인 (전산전자공학부 15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에 대해 수험생활 끝 무렵 알게 되어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로 입학하였지만,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돌아보면 한동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각기 다른 전공의 선배배들이 어울려서 팀을 이루는 것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팀이 좋았지만 특별히 1학년 때 팀이 아직도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고학년 선배들이 바쁜 와중에도 먼저 나서서 팀 분위기를 이끌어 주고 새내기인 저에게 특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학교를 사랑하게 되었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HanST 한스트 스태프로, 또 2학년 여름방학 댄 고등학생들을 위한 G-IMPACT 캠프의 도우미로 섬기며 피곤을 이기게 하는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총학생회에서 협력국 부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였지만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임하기 보다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게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열매 맺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학회, 학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우리를 만나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 사람이 사는 공동체라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있어 한동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동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획하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저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됨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인턴십 이야기

양호정 (ICT창업학부 14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는 해외개척단 AFLO 인턴 프로그램으로 약 4개월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다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항상 하고 싶었는데 마침 4학년을 앞두고 좋은 기회가 주어져 다녀왔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한국 배를 홍보하여 브라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바이어들을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수출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을 하며 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남은 한동 생활동안 어떤 면에서 성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타지생활이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현지 한인교회의 성도분들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인턴십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에 물들여가기 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굳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동에서 배운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4년 동안 신앙, 인성, 직무능력을 모두 갖추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한동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학교를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을 꿈꾸는 여러분들도 한동에 오면 인턴 뿐만 아니라 공부, 학회, 동아리, 공모전, 운동 등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길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 시키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축복합니다!



2019학년도 한동대학교 입학설명회

주요내용

- 수험생을 위한 2019학년도 한동대 입시안내
- 고1~2학년을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방법 안내
-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 안내
- 입학사정관과의 개별상담

설명회 참가 신청 <https://goo.gl/Gpk3Ak>



포항

8.16(THU)19:00
한동대학교

인천

8.30(THU)19:00
주안대학원대학교

순천

8.30(THU)19:00
천보교회

서울

8.31(FRI)19:00
양재온누리교회

전주

8.31(FRI)19:00
바울교회

광주

9.1(SAT)14:00
새희망교회

수원

9.1(SAT)14:00
수원중앙침례교회

대구

9.6(THU)19:00
동일교회

청주

9.6(THU) 19:00
상당교회



Focus 2

한동 가족목회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7000 갈대상자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동모임이 있다. 바로 한동인들의 목회자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한동을 위한 후원과 기도 모임이다.

현재 학령인구 격감과 사립대학 공영화 계획으로 사립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인을 바탕으로 영성, 인성, 지성의 전인격적 교육을 특성화 하고 있는 한동대도 그 정체성과 존재목적이 위협받게 된 가운데, 2017년 제2의 '7000 갈대상자' 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동을 하나님의 대학으로 더욱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관심과 협력, 중보는 너무나 중요하다. 한동인들의 간증과 소식, 이야기들을 많은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전파하고, 소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교 때부터 한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준 한국교회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한동가족목회자 서울 지역 모임은 인사와 자녀 소개, 짧지만 자녀의 입학 간증을 나누면서 시작되었다. 다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야기로 금방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을 위해서 제작한 7000 갈대상자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 동안 한동의 걸음과 함께 한 많은 후원자와 중보자들, 그리고 이제는 동문 졸업생이 그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한동을 위해 함께 기도할 중보자로 한 분 한 분 각오를 다짐하는 감동이 있었다. 이어서 이번 7000 갈대상자 영상을 제작한 박광민(99학번) 동문의 간증이 있었다. 한동 선교의 첫번째 순교자인 강경식, 권영민 동문의 순교지인 퍼지에서 그 시기 선교사 자녀로 있었던 본인의 경험과 이 순교자를 배출한 한동대학에 대한 호기심이 한동인으로 지원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또한 이번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믿지 않던 촬영스텝들의 믿음의 간증을 나누어주면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절한 기도 시간 이후, 짙은 어둠 속에서 개교한 한동의 이야기와 그 시간들을 한국교회와 후원자들의 사랑과 중보기도로 이겨내었던 김영애 사모(김영길 초대총장)의 간증과 최근의 새로운 위기와 다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한 한동의 이야기를 전해 준 이재훈 이사장의 말씀이 참석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감동과 은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7000 갈대상자 후원신청으로 이어간 참석자들도 있었다.

모임을 참석한 원성아 학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한동에 보내어 놓고 사역에 집중하며, 멀리서나마 기도로 중보하였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한동가족목회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학교가 새로운 위기 가운데 더 많은 관심과 후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더 보태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서 후원도 신청하였다.” 또한 이 모임을 함께 준비한 조준목 동문(98학번)은 “졸업생으로서, 7000 갈대상자를 위한 한동대가족목회자 서울지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한동을 위해 미약하지만 도울 수 있어서 준비하는 내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 현



장에 오신 한동 가족목회자를 만나며, 한국교회의 사랑이 참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졸업생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한동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한동을 떠난 이후에는 각자가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갚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또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와의 연합이다. 건강한 한국 교회들의 지원과 기도 없이는 기독교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한동가족목회자 모임은 이를 위해 이번 서울 모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국 모임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 모임을 위해 많은 가족 목회자 학부모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동가족목회자라면,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김영길 명예총장님의 역경의 열매 소책자를 보내어 드립니다.



7000 갈대상자 "옥합을 깨뜨린 두 자매"

이재훈(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사장)

지난 4월 6일 아침 김영애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 권사님은 한동대 김영길 명예총장의 부인이며, 베스트셀러인 '갈대상자'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 권사님은 그날 오후에 두 분의 권사님을 꼭 뵙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커트한 85세 된 권사님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72세 된 사촌 여동생과 함께 나타나셨다. 영적 기품이 느껴지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의 사연은 한인 이민자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저희는 사촌인데 1975년 미국으로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전화 한 통 겨우 할 수 있는 동전이 전부였어요. 마중 나온 지인은 우리를 봉제공장으로 안내했어요. 봉제공장에서 도시락 하나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종일 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오후에는 간식으로 나오는 논썩만큼 얇은 멜론 한 조각을 껍질째 다 먹었지요. 일한 만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하루에 2~3시간 자고 죽기 살기로 일만 했어요.

그러다 이듬해에 제가 결국 과로로 쓰러져 입원을 했어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병이 난 거지요. 영양실조였어요. 동생은 미용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냈지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넌 재봉틀만 돌리다 왔구나' 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로 우리 자매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말이 통하는 조국에서 섬기기로 했어요. 교회의 어느 장로님은 한국 가는데 무슨 선교사냐며 반대했지만, 목사님은 한국도 선교지라며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두 분은 한국의 한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자비량으로 봉사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다. 그것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한동대 학교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희가 살던 미국 집을 팔아 오래전 서울에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모은 돈 5억5천여만원과 29만5천 달러입니다. 이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땀을 한동에 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싹 틔우시고 가지를 무성케 하셔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있을까요?"

지난해 말, 두 분은 미국에서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 7년 전에 신청했던 정부 지원 노인복지 아파트 입주가 최종 승인됐다 는 것이다.

"저희는 노후 걱정 안 합니다. 미국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요. 100원 주시면 100원 쓰고, 50원 주시면 50원 쓰면 돼요. 절약 생활은 몸에 뱀습니다. 행여 노숙인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먹여 살 리실 테니 걱정 없어요.



처음엔 이 가운데 얼마를 미국 갈 때 필요한 물건을 좀 사서 갈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 쓸 것을 다 준비해 뒀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마음이 탁 부딪혔어요. 동생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언니 권사님은 말씀하는 내내 힘들고 고단했던 삶이 스친듯 계속 눈시울을 닦았다. 두 분의 고백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나의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두 권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이들의 일생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두 분의 고백을 듣고 기도한 김영애 권사님께 이렇게 부탁드렸다.

“권사님, 저와 우리 한동인들이 이 아름다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이 시대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고 외치는 한동인들에게 산증인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이름을 밝히지 않을 테니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간청하는 두 분의 뜻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귀한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 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서다.

옥합을 깨뜨린 두 분의 귀한 헌신을 묵상하면서 두 분처럼 싱글로 조선인들을 섬기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 모토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



한동 기도의 장막 Handong's House of Prayer for Every Nation

심하영 학우(상담심리사회복지 13)



Q.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13학번 심하영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사회복지 수업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책인 '심하영의 이해: 어느 평범한 시골 소녀의 이야기'의 글귀를 인용 하고 싶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알았다. 이 땅 어디에도 영원히 정착할 수 없음을 생각보다 일찍 알게 되었다. '나의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았다. '나의 집'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 돌아갈 곳으로 가는, 작고 행복한 나그네라고...> 돌아갈 곳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한동안 익숙했던 길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지낸 시간들이 저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Q. 기도의 장막이란 무엇인가요?

기도의 장막은 영어로 번역된 House of Prayer for Every nation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한동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미 기도의 장막,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한동대학교 뉴턴홀 앞 로맨틱 잔디에 세워진 한동 기도의 장막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및 한동의 모든 구성원이 한동 공동체와 남과 북,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Q. 학우님에게 기도의 장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한동 기도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졸업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수없이 외치며 드디어 그 세상(the World)에 나가기 전에 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마지막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에게 한동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에 선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장막에서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장막을 나와 잔디밭 위에서 보았던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도의 장막은 마치 광야를 지나간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호렙산 같습니다. 한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하였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알게 하신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지진 후 임시 기도의 장막이 생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진 이후 무너진 건물들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학사 일정들이 중단됐습니다. 학생들은 귀가 조치됐고, 외국인 친구들은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장님을 비롯하여 교직원들은 매일 같이 건물을 점검하고, 복구공사를 위해 힘쓰셨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단지 물리적인 복구에만 힘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 101호에 모여 한동의 회복을 위해 기도 했고, 그 기도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그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율학습 기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기 전, 마지막 기도회에 모이셨던 교수님들은 한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 장소는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두려워 떠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장막은 한동인들이 아침에 도서관을 가는 길이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에 단 5분 만이라도 들려서 한동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구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강하기 전까지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동 공동체 구성원들이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장막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도의 장막에는 하루에 100여 명의 학생이 찾아와 기도하며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늘 채워져 있는 따뜻한 커피와 빵, 과자들로 몸까지 따뜻하게 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시 한동 기도의 장막은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교직원분들의 마음과 헌신, 이를 알게 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종강까지 무사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Q. 임시 기도 장막을 섬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처음에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뉴턴홀 앞에 깔린 로맨틱 잔디밭 위에 장막이 세워진 것을 보았을 때는 ‘저게 뭐냐?’ 궁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장막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김이람 교수님과 학생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같이 아침을 먹으며 장막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밀린 강의들로 바빴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장막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통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저와 같이 장막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동인들을 위해 장막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마침 수업이 없었던 제가 그 홍보영상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일에 저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장막을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의 장막을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Q. 한동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잔디밭에 기도의 장막이 세워진 것은 무너진 한동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셨던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진 한동 기도의 장막에서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장막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며, 한동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송축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막 자체가 세워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막이 세워졌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선 장막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장막 자체를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임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한동 기도의 장막에 나아와 기도할 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한 몸 된 자체임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 공동체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세상을 환히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한동대 학부모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현우야 태린아 ~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을때면 아빠는 사랑하는 하버탑길으로 가 있을거야.

몇번 써본 사랑의 편지이지만 유독은 감회가 새롭네 ^^

아빠는 평생에 한동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주권이 주인인 대학이

한동대라는 학문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과자걸러 자라 학생에 아빠도 동참해 오면서 어떻게 하면

한동대를 아이같이 느낄 수 있을까? 하고 노안을 많이 했었던단다.

결론은 어렵다.

먼저 아빠가 작은 시작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

> 양식이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통하여 실천해 보라는 것이었지.

아빠가 하기로 가던 여러개의 생명보험이 아들한테 >중에 가져야.

금액은 ₩43,537,415 (원래는 4천만원인데 조금 줄였어)

아직은 꼭 한동대에 기부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성적과 상반없이 공부하길 했는데 돈이 있어 어려운 학생 >중에 존재

가려서 하는 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으로 차출했으면 좋겠다.

노안과 현우야 태린아

아빠의 아들로 사랑해 ^^♡

Date. 2012. 4. 30

Name. 류 종 현

I.D No.



류충렬 집사님은 2008 학번 졸업생 류현우 군의 부친으로 2009년도에는 강북, 노원 도봉 지역 학부모기도회 기도팀장을 하셨던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님입니다. 고인은 2013년 부터 암 투병하다가 2018년 5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인을 보내 드린 후 가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들었던 생명보험을 자신이 언젠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을 사랑하는 한동대를 위해 써 달라는 부탁을 자녀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남편의 유언과도 같이 써놓았던 편지를 보고, 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한동대에 사망 보험금 4 천여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평소 곁에서 알고 지냈던 고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떠날 때, 그리고 떠난 후에 더 커 보이는 사람...

마지막 임종 때에 오히려 더 얼굴이 밝고 기쁨이 넘치며, 마지막까지 평신도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같은 병원에 있는 비신자들을 전도하던 그 모습이 마치 주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유가족의 뜻을 전해 들으면서 한동대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동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소식이 또 다른 형태의 갈대상자 사건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 보험금을 한동대를 위해 기부하는 그 방법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사랑의 기부금과 기도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한동대 출신들이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동대를 다닌 자녀로 인해 한동대 학부모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한동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한동대 학부모로서 미래의 또한 다음세대들을 멋지게 길러내는 한동대를 위해 기도하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기도회-

느헤미야홀 복구를 위한 총동문회의 사랑을 기억하며 REBUILD HANDONG



지난 3월 7일 느헤미야홀 1층 로비에서 기부 벽(Donor wall) 제막 행사가 열렸다. 기부 벽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한동대 느헤미야 홀 복구를 후원한 총동문회의 뜻을 기리며, 동문의 모교 방문 명소로 만들고자 설치했다. 느헤미야 홀 로비에 설치한 기부 벽은 '리빌드 한동(REBUILD HANDONG)'이라 적힌 문구와 함께 배경에는 복구 비용을 후원한 동문 2,35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과 최유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재학생, NIBC 박진호 대표 등 교내·외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순홍 총장은 기념식에서 느헤미야 홀을 '개교 때 세워진 건물', '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육이 이뤄지는 곳', '지진 당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곳', '성벽을 재건한 성경 인물의 이름'이라 하며, 느헤미야 홀 복구의 상징성을 말했다. 그리고 장 총장은 "동문이 후원해 주시고 동문 중 NIBC가 와서 복구공사를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부했던 분이 돌아와서 복구 활동을 해 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NIBC는 본교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로 지진 피해 복구공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장 총장은 "느헤미야 홀에 이를 기억하며 앞으로 후세에도 한동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건됐고, 이런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기념 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총동문회는 느헤미야 홀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에 3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총동문회 최유강 회장은 "한동에서 받은 사랑을 동문이 잊지 않고, 아직 연약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동참하는 여러 마음에 혼자 감동하여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난다."라며 "총동문회는 졸업한 학외 구성원으로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뎠던 행동을 할까 늘 조심스러운데 이번만큼은 이견이 없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한동대의 사명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 했을 때 물리적으로 지진이 난 것이지만 동문이 그 사명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라며 "한동대가 계속해서 세상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줬으면 좋겠다. 선배들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기념벽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000 학우 (글로벌리더십 18)

저는 2018년 1학기 여호수아 장학생이자 18학번 새내기인 글로벌리더십학부 000입니다. 저희 가족은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도와 동역하고 계시는 어머니, 언니, 초등학생인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다섯 식구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가정에는 믿음이 넘쳐 흘렀고, 비록 물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은혜는 부유했기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는 교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노회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교회사례비와 노회지원금을 합쳐도 한 달 소득은 100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섯 식구가 생활해야 했고, 저희 세 자매의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꿈을 꾸며 더 공부하기를 바랐지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문제집을 하나 더 사고, 학원을 다니는 일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그저 너무나도 큰 욕심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공부에 도움될 것들을 사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놀러가는 일, 가고 싶은 진로 캠프에 참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할 의욕과 열정은 넘쳐났지만,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며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련은 주시지 말라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오랫동안 꿈꾸던 한동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입학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국가 장학금도 받으며 입학했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2년 동안 바라온 한동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또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비를 부담할 돈이 없어서 1학년 첫 학기부터 통학을 하게 되었고, 기숙사에서 동기 새내기들과, 그리고 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꾸며 나가겠다는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없어 친구들과 추억도 많이 쌓지 못했고 매일 피곤한 몸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지칠 대로 지친 제 모습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이런 저런 상황적인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수아 장학금이라는 선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덕분에 통학하는 데에 드는 교통비를 부담할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호수아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해도 태양이 항상 꽃을 비추고 있듯이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을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이제서야 비로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을 받은 이후, 저희 학교생활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갑자기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주 밥값조차 모자라진 않을지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학금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한동대 16학번 고지은 (여호수아 장학생)



선교사 부모님께 힘이 되는

여호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한동대 다니는 저희 삼형제는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며 딸 셋을 입양하고 부족한 형편에도 항상 감사하는 부모님의 신앙과 성실함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한동에서 저희 삼형제가 받은 여호수아 장학금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바램은 육남매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지금 받은 이 사랑과 위로를 또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대 13학번 조선묵 11학번 조선웅 17학번 조선주 (여호수아 장학생)

사실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성장을 위해 마련해두신 믿음 연습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라는 말처럼 지금 닦쳐오는 시련들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는 일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의 기도 내용은 항상 더 이상의 시련은 없었으면, 이제는 힘든 일이 없었기를 바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련을 주시더라도 이 시련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돕는 주님의 인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입니다. 저의 꿈은 교수가 되어 단순히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 지금 겪는 시련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롯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런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훗날 저 같은 힘들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예전부터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며 저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했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주신 바로 그 길이 한동대학교 입학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동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가슴 졸이고 설렜던 그 순간순간의 감정과 간절함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 장학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며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ungu ni hai 살아계신 하나님

박지나(글로벌리더십 18)



바야흐로 5년 전은 Al Shabab에 의한 Westgate 쇼핑몰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케냐뿐만 아니라 주변 동아프리카 국가 전체가 테러에 대한 위협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선교사 자녀로 생활하면서 3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중복 수학, 휴학, 전학 등을 거쳐서 드디어 케냐에 있는 선교사자녀 기숙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살에 드디어 9학년이 되었고, 케냐로 혼자서 유학을 온 저로서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던 터라, 무장강도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기마다 혹시 모를 테러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항상 학교에서 한다는 Lock-down drill은 그저 하나의 훈련이라는 생각에 불과했었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그 쇼핑몰에 가 있었던 저희 반 남자아이의 증언과 외신기자가 찍은 테러의 사진들과 시내에 가끔 나갈 때마다 차를 수색하고 몸을 수색하는 경찰들과 경비들을 보면서였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야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과 더불어서 “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했고, 설령 테러나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학년이 바뀌었고, 테러 사건도 어느 정도 잊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중간방학을 맞이하여서 저를 포함 학교 친구들 14명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을 그날에,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에는 완벽한 그날에, 저에게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보다 먼저 숙소로 돌아왔을 때, 평범하던 숙소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공간이 일그러져있는 것만 같았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 생애 처음으로 저를 향하여 겨누어지고 있던 장전된 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습니다. 주변에는 같이 왔던 어린 친구들이 울고 있었고, 모든 방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우리는 무장강도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에게 어떡하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위로를 해주면서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서서히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14명 모두 다 입이 막히고, 손이 결박된 채로 감금되었고, 몇몇 애들이 다른 방으로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그저 아이들을 저의 눈빛으로, 어깨로, 코로, 이마로 다독였습니다. 눈앞에서 강도들이 총구를 들이밀며 협박할 때도, 저의 마음은 그저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치듯이 저희 모두 오늘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을 그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 저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든 순간마저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되려 강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구원을 얻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성경책도 같이 훔쳐가기를, 그래서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구절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제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에는 무장강도들이 먼저 돈을 찾고 떠나서, 저희는 크게 다친 곳 없이 강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보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용기와 평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강도사건을 통하여서 2015년도 가리사 기독교 대학교 테러 사건에도, 그 후 다른 테러 위협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저처럼 힘든 경험을 했던 아이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해줄 수 있어서, 저의 경험이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곁에 있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였고, 설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의 곁으로 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시련은 주님과 더 가깝게 되는 계기와 시간이 되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동대학교와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들을 두고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을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포항 5.4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진원지가 한동대학교 근처라는 것을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불현듯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메시지와 사인을 보내시는 대학은 한동대학교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와 더욱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동대학교를 검색한 결과, HANDONG GOD'S UNIVERSITY라는 현동홀에 써진 글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저는 한동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이고, 그곳에서 그분이 저를 향한 크신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떤 나라로 가야 할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서, 무슨 뜻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단 먼저 가야 했던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잊혀져 갈 때 이렇게 주님께서 반박할 수 없는 그분의 사인과 깨달음을 주셔서, 또 저의 작은 기도마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를 다듬어 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나눈 이야기는 그저 저의 삶에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주님을 나누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직접 많이 보고 느껴왔던 저는, 이제는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Mungu ni hai!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라메나리슨 노로소아 줄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라메나리슨 노로소아(RAMENARISON, NORO)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이 길어서 모두 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15학번, 현재 7학기를 하고 있는 시니어(SENIOR)입니다. 현재 국제관의 RA로 섬기고 있고,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지만 제 대부분의 어린시절을 르완다에서 보냈습니다. 한국의 포항과 다르게 두 지역 모두가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르완다에서부터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동이 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지원한 것은 저 자신이지만 한동이 저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한동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먼 르완다에서 한동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완다로 사역을 온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예의 바르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고 감동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저는 한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결실로 제가 한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한국에서 굳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르완다, 마다가스카르보다 포항은 제게 신나고 재밌는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대구, 부산, 경주가 있어서 여행을 하기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것 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한동의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오고 나서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좋은점은 '사람'입니다.

저는 국제 학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숙사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저는 오픈마인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또 한가지 한동대학교의 좋은 점은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는 '나비'라고 부르는 고양이를 보살펴 주는데, 보살피는 마음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살펴 주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지만, 칭찬을 바라지 않고 돌봐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르완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또한 한동에 와서도 저와 비슷한 환경,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이라는 곳, 한동 공동체라는 곳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저를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선생님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역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즉,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에 오게 된 것도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어느 지역이 됐든 이끄시는 대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신뢰합니다.



따뜻한 한끼, 23,301번의 한동만나를 나누다



우리 대학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동만나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23,301번의 식사를 학생들과 나눴다. 한동만나는 2016년 한시적 캠페인으로 운영했다가 2016년 2학기부터 정규 캠페인으로 시작했다. 전액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한동만나는 후원자, 한동대 총동문회, 한동대 총학생회와 신세계푸드의 후원과 외부 후원자들의 사랑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동 만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은 “용돈은 떨어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굶거나 삼각김밥, 주먹밥으로만 식사를 하던 중 한동만나를 알게 됐다”라며 “한동 만나 덕분에 오늘 제대로 된 한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만나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순흥 총장은 “한동만나는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아너코드로 함께 채워가는 사랑의 위로이자, 따뜻한 한 끼다.”라며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스스로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동만나를 이용한 학생들의 이야기

이번학기 갑작스럽게 집이 어려워져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학식 3000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2000원짜리 김밥 한줄을 사서 점심, 저녁 두끼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동만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동만나를 후원해주시고, 정직하게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학번 학생입니다. 솔직히 돈이 없었을 때 하루 꼬박 굶은 적도 있었는데 저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버텼는데 한동만나 이용자 분들의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니 정말 필요할 때는 감사하고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에 오기전부터 한동만나가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정말 따뜻한 한동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통장의 잔고는 사라져가고 밥걱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동만나는 제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는가 봅니다.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내가 그렇게 힘든가 계속 판단하게 되네요 아직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 는 한동만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부모님 잘 만나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동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어요. 우리가 절대 못나서 그런게 아닌데. 어렸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렸던 저에게 용기를 주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힘이 되었다는 메세지들을 읽으면서,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동행의 세대니까요. 앞으로 작은 도움이지만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두번정도 한동만나를 이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때 도움을 베풀어주셔서 밥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한동만나를 이용하게 될 날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 졌거든요, 그런데 한동만나가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한동만나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넉넉치 않은 용돈으로 부모님께 손벌리기도 힘들때 한동만나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걱정없이 한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는 제가 후원자가 되어 한동만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동만나를 계속해서 한동의 전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만나가 아니었다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밤마다 고민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만나를 이용해왔던 18학번 새내기입니다! 항상 통장에 돈이 부족할때마다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싸지만 먹어도 별로 배가 부르지 않는 음식들만 먹어야해서 배도 고프고 마음도 고팠는데 한동만나 덕분에 마음도 든든 배도 든든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같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너코드를 지켜주신 학우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운영해주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용 문제로 새내기인데도 저는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통학하느라 드는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어 걱정이 되었는데 한동만나는 저에게 진짜 너무나도 은혜 가득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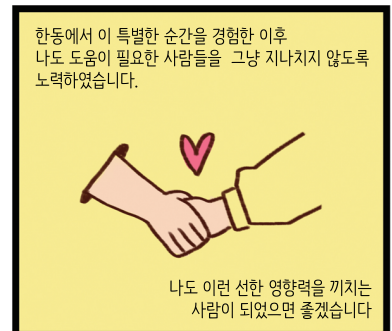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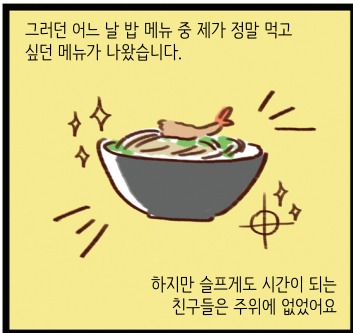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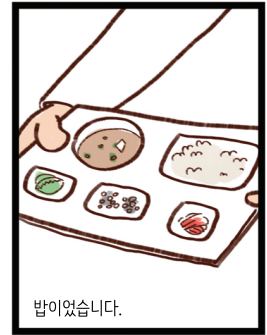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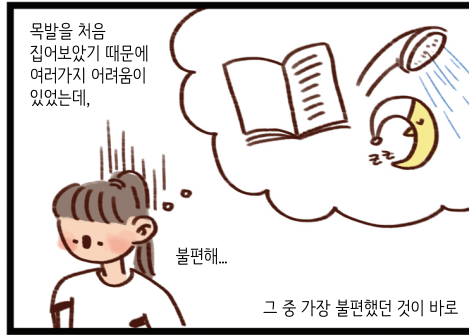
아직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동만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너코드를 지키고 이 따뜻한 한동문화에 후원하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포함한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의 끼니를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겠습니다. :)

이번학기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먹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 있었는데 한동만나가 있어서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동에 이런 문화가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한 문화를 세상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기말 푸드포인트가 끝나면 밥먹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항상 가격에만 눈이 돌아가고 먹을게 없다고 라운지나 버거킹가자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동공이 흔들리곤 했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 이어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기부자 명단

2018.1.1~2018.6.30, 418명

감상도	김덕현	김정희	모진성	배항미	신지연	유현준	이성기	임종욱	조수진	최황경
강미아	김동욱	김주현	문다희	백문석	신현구	육근영	이수영	임태영	조양기	최훈
강병선	김미숙	김준기	문정희	백승균	심석규	윤다예	이수진	장경란	조연수	하산두
강신덕	김미숙	김준석	민상기	백승현	심석규	윤성원	이순여	장남희	조영숙	하승호
강현주	김민수	김준영	민현숙	백원열	심의수	윤신원	이승우	장은실	조영주	하현준
강호준	김복금	김중석	박건양	백인호	안정심	윤신원	이아람	장은정	조영희	한말수
고경임	김상우	김지선	박경현	백인호	안준학	윤영호	이에벤	장재원(장일우)	조요한09	한미정
고영미	김선미	김지영	박기형	백창현	안창면	윤용길	이여진	장종환	조일호	한상윤
고영봉	김선미	김진화	박도순	변경신	안철준	윤점욱	이여진	장희남	조준연	한수민
고현석	김선재	김창주	박병찬	서범석	양구원	윤정숙	이예형	정맑음	조천희	한영일
고현석	김성현김성은	김태원	박복녀	서선교	양옥진	윤정필	이용훈	정명화	주은숙	한유석
공영채	김혜인	김태원	박성호	서연식	양요한	윤종복	이우영	정민경	지상목	한창균
공태성	김송정	김한결	박수민	서정선	양진욱	윤호선	이유민	정민주	차은주	허희정
곽국희	김순남	김현식	박수현	서형희	양춘경	이과형	이윤선	정순풍	차정관	현승국
곽성근	김승환	김현진	박승희	서희원	양효정	이광순	이윤숙	정영희	차하은	현정화
권미정	김시현	김형중	박영선	석재연	오동근	이근수	이은석	정요한	채기현	현춘기
권소희	김신용	김형찬	박은순	선한결	오은실	이기쁨	이은식	정은화	채순자	호성희
권순민	김애자	김혜리	박종수	소영성	오은찬	이기준	이은아	정인숙	채훈기	홍기영
권예림	김영균	김혜숙	박주현	손성인	오종상	이길수	이은정	정재철	최관식	홍사학
권오주	김영미	김혜영	박창국	손에스터	오종상	이길희	이익주	정종암	최명석	홍순도
권용덕	김영호	나미경	박춘호	손주희	오주암	이난주	이인숙	정주철	최명섭	홍예나
권위영	김옥진	나영란(박종식)	박하영	송근수	오창식	이만섭	이재강	정창범	최명희	홍주영
권일중	김유경	나윤철	박하은	송영민	오혜자	이명숙	이재식	정태미	최성재	홍주은
권지혜	김은주	나지영	박현준	송종일	옥나라	이미란	이재원	정혜우	최성재	홍주은
권형택	김은진	남궁영은	박형조	송헌	우병훈	이미령	이주찬	정혜진	최승기	황순목
기동복	김은태	남정우	박호균김성연	송형	원동미	이미정	이준희	조계성	최옥이	황승희
김경숙	김은화	남현옥	박화예	신동창	원성아	이병훈	이지연	조광신	최은주	황의철
김경옥	김의성	노수철	박희환	신보식	유신애	이보영(박지성)	이창성	조광신	최인환	황인현
김광섭	김의환	노윤석	배경민	신성결	유영자	이상은	이창희	조동진	최정민	황혜영
김광택	김일영	도귀화	배영란	신예균	유익한	이상현	이태우	조미영	최정선	
김국중	김정남	류현중	배영민	신옥자	유인숙	이상희	이희정	조병순	최주진	
김남희	김정수	마민호	배영호	신은정	유정은	이선기	임문환	조상미	최준혁	
김덕수	김정순	모선옥	배정주	신의석	유한나	이선기	임병훈(임내과)	조수진	최철영	

(주)다이넥스시흥	기쁜소식교회	만수동교회	아침교회(안석문)	인천예은교회	한울생명과학(주)
(주)하능	김홍철 이비인후과	말씀동산교회(정형돈)	안양A안양B	재단법인 DB김준기문화재단	함께하는교회
(주)효성	남서울교회	모든출력인쇄	엄인애(화수교회권사회)	정동제일교회	행안교회
18년도서당골24기	남원향산교회	본죽황성점	엘림힐링교회	주식회사 오빌종합건설	현대제철주식회사
강화성광교회6여전도회	다원글로벌	삼광교회	오성주내과의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랑 커뮤니티 교회
거제 고현교회	대구경북교수선교회	서울영동교회	오송교회	천안좋은교회	
경북 성주교회	대전소망교회	세종씨애펜(주)	옥산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경주샘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남노회	소망이풍성한교회	원일유치원	청주학부모기도회	
광주말알두레	대한예수교장로회 삼광교회	송도산성교회	은빛노인복지센터 신수현	학부모기도회	
군산개복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좋은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인쇄마당	학회MAGIC	
기독교한국침례교회	드림교회	신도교회	인천예은교회	한동캔들	

후원 안내

갈대상자(일반후원)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매월 1만원 이상, 혹은 일시 후원으로 한동을 더욱 견고히 엮어가는 갈대상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문(졸업동문 대상)

한동문은 오직 '한동의 졸업 동문'만 참여할 수 있는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으로 매월 1만원 이상 후원 가능합니다.

한동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줄 바로 그 한 사람, 한동의 졸업생, 한 동문을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선교사 자녀 후원)

한동의 목회자·선교사 자녀(재학생의 약20%, 2015년 기준)가 한국 교회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되도록,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중보할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후원자와 1:1 매칭, 생활장학금 1년 120만원 / 등록장학금 1년 600만원)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 첫 열매 (첫 월급)

첫열매는 수확한 첫 소산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월급입니다. 그래서 한동을 졸업한 선배들이 첫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는 후원프로그램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건축기금

한동대는 대부분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 생활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배워가며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캠퍼스 내 생활관부터 도서관, 강의실 등 다양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하나은행 518-910023-12905

하용조 장학금(장학, 연구 및 국제화 활동 후원)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한 설교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순종했던 비전 메이커였던故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갈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한동대학교-하용조기금 하나은행 132-890008-58904

7000 갈대상자(일반후원)

급변하는 이 시대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 필요가 절실한 한동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는 교회, 기관, 개인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 매년 100만원 이상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한동천사(재학생 대상)

'한동의 밝은 미래를 '천원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한동천사는 매월 1천원 이상 후원하는 재학생 갈대상자 캠페인입니다. 한동천사에 참여함으로 오늘의 한동과 내일의 한동을 이어가는 한동 사랑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505-094401-00104

한동만나(재학생 식비 후원)

한동만나는 한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후원자와 한동 공동체가 함께 채워,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아너코드에 따라 이용하는 사랑의 위로, 따뜻한 한 끼입니다. 1만원을 후원하시면 약 한 동만나 4끼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한동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시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보아스(고액 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롯.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동을 향해 큰 사랑의 손길을 펼칠 보아스 후원자를 찾습니다.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과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보아스는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 발전기금과 세금 | 출원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제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발급

후원관련 문의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 후원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8-13 라임타워 12층
전화: 02-3443-3232
팩스: 02-3446-3939
E-mail: hguseoul@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 ksc@bskb.com

후원신청서

후원자정보

성명[교회/개인/기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출석교회
구분	☐ 일반인 ☐ 기업 ☐ 교직원 ☐ 학부모(자녀성명/학번: _____) ☐ 동문(학번: _____) ☐ 교회 ☐ 기타

약정정보

후원금액	☐ 일회 원 ☐ 정기 월 원
후원종류	☐ 7000 갈대상자 ☐ 갈대상자(일반) ☐ 한동문(졸업동문) ☐ 보아스(고액) ☐ 여호수아 생활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120만원, 월10만원) ☐ 여호수아 등록장학금 ____명 (선교사목회자 자녀후원, 1명, 1년 600만원, 월50만원) ☐ 팀워크(교육선교) ☐ 한동만나 ☐ 건축기금 ☐ 기타지정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 발행 [주민(사업자)등록번호: _____] ☐ 미발행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이체일 ☐ 10일 ☐ 23일				
	<table> <tr> <td>은행명</td> <td>계좌번호</td> </tr> <tr> <td>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 <td>예금주명 (서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td> </tr> </table>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서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명 (서명) *후원신청자와 예금주는 동일해야 함				
☐ 무통장 입금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여부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후원금액, 후원목적 선택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교회, 학번, 자녀성명,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정보 민감정보 종교, 출석교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목적으로 수집,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정보제공	자동이체출금이체서비스(금융결제원), 기부금 납부 및 기부자예우, 모금통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 소득세법제160조의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예우등 기부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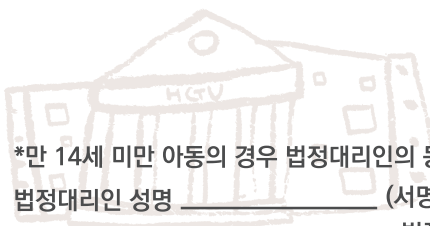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학)한동대학교 이사장
한동대학교 총장 귀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_____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_____





무통장 입금 안내

후원종류	목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갈대상자/ 7000 갈대상자	일반기부금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일반기부금(고액)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학)한동대학교
팀워크	개발도상국 외국인유학생 교육	하나은행	518-910023-11205	한동대학교
한동만나	가계곤란 재학생 식비지원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첫열매 /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용도 지정	하나은행	518-910007-34704	한동대학교
여호수아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자녀 교육	하나은행	910-910002-68604	한동대학교여호수아
건축기금	건축	하나은행	518-910023-12905	한동대학교

*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갈대상자 및 보아스 후원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외 후원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방법



전화

054.260.1063



팩스

054.260.1069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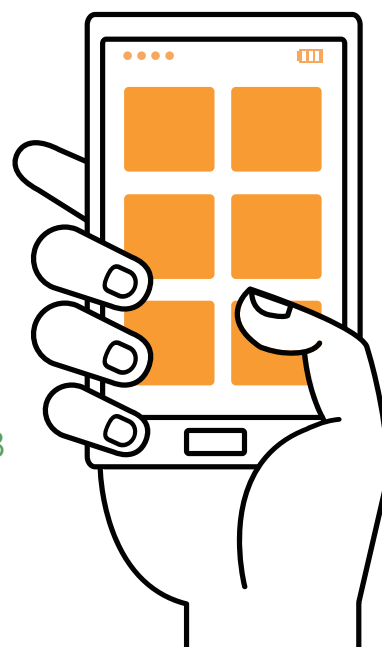
sarang@handong.edu



발전기금 홈페이지

sarang.handong.edu

후원 신청서를
핸드폰 촬영 후
문자전송하여
등록 가능
010-9260-1063



한동대학교 7000 갈대상자 **NAVER** 7000 갈대상자 ▾

후원금액 1년 100만원

사용목적 한동대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참여방법 신청서 문자발송 010-9260-1063 | 온라인,스마트폰 <http://sarang.handong.edu/7000> | 우편발송

입금계좌 하나은행 910-910002-55405 (학) 한동대학교

후원문의 (학) 한동대학교 후원팀 |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054-260-1063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믿음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크리스천 비율이 약 89%로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예배이며,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전공, 학년 구분없이 30-40명이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캠퍼스와 생활관에서 전인교육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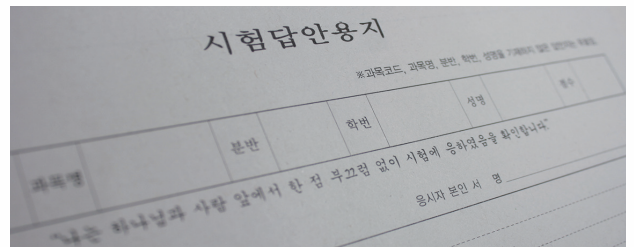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의 훈련소입니다.

재학생의 약20%가 선교사,목회자 자녀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익힌 언어와 다양한 문화 경험, 친화력 등의 강점과 함께 한동에서 훈련받으며 글로벌 리더, 부모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 온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학의 학생만족도를 나타내는 한동대의 중도탈락률은 1.3%로 전국 사립대중 가장 낮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2016년 대학 중도탈락 학생 현황')



정직을 배웁니다.

무감독양심시험으로 대표되는 한동명예제도와 끼니를 거르는 학생을 위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식사하는 한동만나는 한동의 정직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성·인성·영성 교육을 통하여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필요가 절실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